

한국 경제성장률 2년새 60계단 추락

작년 117위... 유로존 위기·中 성장률 둔화 탓

OECD 회원국 순위도 최상위권→중위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전세계 189개 국가 중 순위가 57위에서 117위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순위도 최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내려앉았다.

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2.0%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의 경우 6.3%로 세계 57위였지만, 2011년에는 3.6%로 102위로 밀려났다. 작년에는 결국 2.0%까지 떨어져 2년 사이 60계단이나 내려갔다.

반면 내전 종식의 여파에서 벗어

난 리비아는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04.5%의 성장률을 보이며 1위에 올랐다.

이어 시에라리온(19.8%), 몽골(12.3%), 니제르(11.2%), 투르크메니스탄(11.0%), 파나마(10.7%), 아프가니스탄(10.2%)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OECD 회원 34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를 살펴봐도 한국의 순위는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한국의 OECD내 성장률 순위는 2010년 2위로 최상위권이었던 2011년에는 8위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중위권에 가까운 10위로 내려앉았다.

OECD에 속한 유럽 주요국도 성장률이 대체로 악화했다.

독일의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은



자료: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합뉴스

0.7%로 전년(3.1%)보다 2.4%p 낮아졌고, OECD내 순위는 10위에서 20위로 10계단 떨어졌다. 영국의 성

장률도 0.9%에서 0.2%로 0.7%p 하락했다.

그리스(-6.4%)와 포르투갈(-3.2%), 이탈리아(-2.4%), 슬로베니아(-2.3%), 헝가리(-1.7%), 스페인(-1.4%) 등 여타 유럽 국가들은 대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경제 성장률과 세계 순위가 대폭 개선됐다.

미국의 작년도 성장률과 OECD내 순위는 각각 2.2%와 9위로 2011년(1.8%·18위)보다 0.4%p와 9위씩 높아졌다. 일본 역시 성장률과 OECD내 순위가 같은 기간 -0.6%와 32위에서 2.0%와 10위로 올라갔다.

인도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의 충격과 중국의 성장을 둔화가 겹친 결과 지난 2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어, 지금이 제철 4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1층 수산매장에서 제철 맞은 가을 전어가 10마리(소) 4500원, 5마리(대) 7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전어는 수온이 낮아지면 기름이 차고 살이 단단해져 지금이 1년 중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여성 직장인 추석 최고 부담 음식 장만

여성 직장인들이 추석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음식장만이며, 명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쇼핑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NS홈쇼핑은 자사 콜센터와 협력회사의 여성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추석에 가장 부담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가 '음식장만 및 차례상 차리기'를 선택했고, '용돈(28%)', '가족 및 친지와의 만남(22%)', '시댁 방문(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응답자의 37%가 '쇼핑'을 꼽았고, '영화나 공연 감상'이 31%, 여행은 16%, 마사지는 12%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명절 후 남편에게 받고 싶은 선물로는 '가방·패션아이템'이 24%로 1위를 차지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 선물 중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는 상품권(82%)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연합뉴스

“지역위한 민영화방안 제시 안하면 출근저지”

광은 노조, 김장학 행장 취임식 봉쇄... 갈등 장기화 될 듯

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11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된 김장학 행장의 취임식이 노조의 반발로 결국 무산되면서 노사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행장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예정인 취임식 참석을 위해 광주은행에 도착했으나 노조원들이 달걀과 밀가루를 투척하며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도착한 지 5분여 만에 되돌아 나갔다.

그동안 상공인과 광주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는 광주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신입 행장에 지역사정을 잘 아는 광주

은행 출신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광주상공회의소는 상공인연합으로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하면서 낙산 인사가 행장이 되면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입김대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돼 자본 확보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은행 노조도 그동안 수차례 성명을 내고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한 낙산식 최고경영자 선임에 대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조는 "민영화는 노조와 직원, 최고경영자 등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일인데 이

순우 회장의 나팔수인 김장학 행장이 민영화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취임식은 노조로서는 저지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애초의 '낙산 인사 반대'에서 한발 물러나 신인 행장이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하는 대신에 지역민과 광주은행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광주은행으로서 민영화가 최대 과제인데

낙산 인사가 금융당국과 정부의 입맛대로 '최고가 입찰'만을 고집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광주·전남 지역민이 수긍하고 광주은행이 주체가 된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출근저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노조원과 청정들의 몸싸움 과정에서 달걀과 밀가루가 날려 일부 임원들이 이를 뒤집어쓰는 모습을 보면서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이날 광주은행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김 행장이 어떤 방안으로 노조를 설득해 출근저지를 풀어낼지, 취임식을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내 성공경영인으로 이름을 알린 기업CEO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아 강연을 갖는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10일 오후 4시30분 대강당에서 제15회 이화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은 '장충동왕족발 신신자 대표가 강사로 초청했으며 신 대표는 '고객을 사로잡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매출 올리는

성공 기업CEO 잇단 광주서 강연 중기청·중진공, 신신자·김원길씨 초청

고객 응대법과 가맹점주에서 최고경영자에 오르기까지의 성공스토리, 신 대표의 경영철학 등이다.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

합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도 10일 오전 7시30분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조찬세미나를 갖는다. 이 행사에는

'맛진 인생을 위하여 불타는 구두를 신어라'의 저자인 김원길 안토니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김 대표는 바이네트 등 인기 구두브랜드를 출시해 성공을 거뒀다.

두 강연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중소기업청 062-360-9105,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062-956-7120).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목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탐방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성사를 호남 1위

배운성사! 결혼성사까지...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